

중년 남성의 치수 체계에 관한 연구

성옥진[†] · 양정은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A Study on Sizing System for Middle Aged Men

Ok-jin Sung[†] · Chung-eun Yang

Dpt. of Fashion Design, Sung Kyun Kwan University
(2004. 5. 25. 접수)

Abstract

This study is to increase the efficiency for the suitability of clothing measurement and the production utility factors by setting up the measurement system with middle-aged men's physical characteristic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measured the body sizes of middle-aged men and analyzed basic sizing items such as drop, height, and bust according to the ISO and KS systems and classified these sizes based on body shapes and heights. As a result, an internationally-compatible measuring system is presented in this study. The most common body shapes are portly (Drop 6) and regular (Drop 12) types and these two types form 74.7%. The height of 164 cm(31.2%) and 170 cm(38.2%) cover 69.4%; and the most general sizes of busts are 92, 96 and 100 and these sizes occupy 74.7%. In consideration of the ranges of height and bust, the general sizes (7 regular types and 9 portly types) are selected to present the standardized measurements; the mark for the top is height-bust-waist and the mark for the bottom is stature-waist-hip.

Key words: ISO, KS, Drop, Size interval; 국제표준화기구, 한국산업규격, 가슴과 허리둘레 차, 치수간격

I. 서 론

의복은 착용하는 사람의 체형과 신체치수에 가능하면 잘 맞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최근에는 의류업체에서 생산하는 아이템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무역 개방에 따른 세계화 추세로 인하여 치수규격의 설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따라서 의류업체는 신체적 적합성을 높이면서 경제적인 의류치수 규격의 설정이 필요한 실정이다(이형숙, 2003).

구미 국가들은 1970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자국의 치수체계를 체형과 키로 분류된 ISO 치수체계(ISO, 1991)에 기초를 두면서 의류 구매자의 신체에 적합하도록 조금씩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70년 이후 체격조사를 실시하여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1997년 제 4차 국민체위조사가 실시되어 이를 기초로 KS K 0050-99가 발표되었는데, 특이할만한 내용은 신체치수 변화 및 체형변화의 특징을 고려하여 연령별 착용 대상자를 분류하고 드롭치에 의해 체형을 분류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류산업규격(산업자원부 기술표준연구원, 2000)은 키를 5cm, 가슴둘레와 허리둘레, 엉덩이둘레를 2~3cm 간격으로 설정하고 있어 너무나 많은 치수 분류로 인하여 의류 생산업체는 현실적으로 정확한 사이즈와 호수의 개수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류치수 규격의 수를 경제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간격 치수가 너무 좁아서는 안되며 간편하고 실용적이며 일관성 있는 패턴 그레이딩을 위해서 보통의 경우 간격 치수를 4~6cm 사이에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형숙, 2003). 실제로 한국과 일본을 제

[†]Corresponding author
E-mail: sungokjin@yahoo.co.kr

외한 구미 국가들은 키는 6cm, 가슴둘레와 허리둘레는 4~6cm 편차를 두어 치수 간격을 설정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도 해외시장 확대 차원에서 외국인도 쉽게 착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 사이즈도 다양하게 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애린, 1993). 그러므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호환 될 수 있는 합리적인 의류치수 체계가 더욱 필요하다.

치수체계 연구에서 여성의 경우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연구되어 왔지만 체형변화가 두드러진 중년 남성을 위한 치수체계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이를 위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중년 남성의 특징으로 김구자, 이순원(1996)은 허리와 배를 중심으로 동체부가 크게 증가하며 허리둘레는 36~43세 때 최고치를 나타내고 이 집단에 비만형이 가장 많이 분포 한다고 했고 장신요(1982), 김지순(1984)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피하지방의 침착으로 두께가 커지고 허리가 뒤틀리고 둥근 체형인 내배엽형으로 변화된다고 하였다. 의복구성의 관점에서 중년 남성에 대한 연구는 전체 성인 남성에 포함되어 연구되었을 뿐 독립적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어 진행된 예가 없으며 중년의 구분도 연구자에 따라 신체적 나이, 생물학적 신체노화의 시작, 신체 각 부위의 치수변화 및 체중의 비만화 경향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대한노인회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56세로 규정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중년의 시기를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김구자, 이순원, 1996)를 참고로 하여 중년 남성의 체형 특징을 뚜렷이 나타내는 35세 이후부터 노년이 시작되는 전 단계인 55세까지를 중년으로 정의하고 중년기 남성을 대상으로 인체측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체측정 결과를 토대로 ISO /KS 치수규격을 비교 검토하고 국제적으로 호환 될 수 있는 합리적인 의류치수 체계설정을 위해 체형과 키를 기준으로 한 중년 남성의 의류치수 체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치수체계는 국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의류생산 업체에는 의류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할 것이라 여겨진다.

II. 연구방법

1. 중년 남성의 신체측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35세에서 55세의 성인 남성을 대상

으로 2002년 9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남성 175명의 인체측정을 실시하였다. 그 중 자료가 미비한 7명을 제외한 168명을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표 1>은 연구 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를 제시한 것이다.

2) 측정방법 및 측정항목

인체측정은 Martin의 인체측정방법과 공업진흥청의 인체측정용어(KS A 7003) 및 인체측정방법(KS A 7004)에 설정된 기준선과 기준점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측정용구는 마틴의 인체 측정기 및 보조용구를 사용하였다. 측정항목은 <표 2>과 같으며 이는 남성의 의류의 치수설정 및 패턴 제작에 필요한 24항목이다.

2. ISO/KS 치수체계에 따른 비교분석

합리적인 치수 간격 설정을 위해 ISO와 KS의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표 3>, 치수 분류를 위해 Drop, 키, 가슴둘레의 기본항목을 ISO와 KS 체계에 맞추어 비교 분석한 후 국제적으로 호환 될 수 있는 중년 남성의 사이즈 체계를 제시하였다.

3. 중년 남성의 의류치수 규격

인체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중년 남성을 체형과 키에 의해 분류한 결과 빈도가 높은 치수의 기본부위와 참고부위를 포함한 치수 분류표를 작성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

연령	빈도	인원수	백분율
중년 전기(35세~39세)		60	35.7%
중년 중기(40세~49세)		77	45.8%
중년 후기(50세~55세)		31	18.5%
합 계		168	100%

<표 2> 측정항목

구분	측정 항목
높이	키, 살높이
길이	앞중심길이, 앞길이, 앞땀, 뒷땀, 뒤길이, 어깨끝점사이길이, 소매길이, 화장, 겨드랑이길이, 등길이, 바지길이, 밑위길이, 밑위 앞뒤길이
둘레	가슴둘레, 허리둘레 배둘레, 엉덩이둘레, 넓다리둘레, 겨드랑이둘레, 위팔둘레
기타	몸무게, 드롭치

<표 3> ISO/KS 치수 분류기준

구분	ISO (ISO, 1991)		KS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0)	
	Body Type	Drop	Body Type	Drop
체형분류	Athletic (스포츠맨형)	18	YY type (마른체형)	22~28
	Regular (표준형)	12	Y type (역삼각체형)	18~22
	Portly (통통한형)	6	A type (보통체형)	14~18
	Stout (딱바라진형)	0	B type (허리가굵은체형)	10~14
	Corpulent (비만형)	-6	BB type (배가나은체형)	6~10
	→ Drop치를 6cm 간격으로 분류		→ Drop치를 4~6cm 간격으로 분류	
키의분류	6cm 간격으로 분류함 (164, 170, 176, 182, 188 의 5 그룹으로 분류)		5cm 간격으로 분류함 (.....155, 160, 165, 170, 175, 180)	
가슴둘레 분류	4cm 간격으로 분류함 (... 92, 96, 100, 104, 108)		2cm 간격으로 분류함 (... 96, 98, 100, 102, 104)	

*ISO 체형분류에 따른 한글 명칭은 선행연구(이형숙, 1999) 참조.

*KS 체형분류에 따른 명칭(K 0050, 1999) 참조.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중년 남성의 신체측정치 분석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각 항목의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을 산출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기

본부위의 평균은 키 167.67cm, 가슴둘레 97.53cm, 허리둘레 86.61cm로 나타났으며 참고부위인 엉덩이둘레는 95.93cm, 살높이는 71.05cm, 드롭치의 평균값은 10.88cm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성인 남성의 치수와 비교할 때(이형숙, 1999) 높이 항목은 작고 둘레 항목은 커져 중년으로 갈수록 점점 비만해짐을 알 수 있다.

<표 4> 신체측정치 분석결과 (단위 cm)

계측항목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높이 항목	키	167.67	5.80	155.80	184.30
	살높이	71.05	3.61	62.30	81.30
길이 항목	앞중심길이	35.81	2.14	30.50	42.00
	앞길이	45.68	2.43	38.00	54.00
	앞폭	38.70	2.11	33.70	46.50
	뒷폭	41.54	2.53	34.70	48.00
	뒤길이	46.88	2.45	36.50	55.50
	양어깨길이	44.24	2.27	37.30	51.00
	겨드랑이길이	19.71	1.51	14.50	26.50
	등길이	43.45	3.12	17.00	49.50
	바지길이	96.45	4.16	87.50	105.50
	밑위길이	25.51	1.65	21.00	28.90
	밑앞뒤길이	74.79	4.22	64.50	89.50
	소매길이	54.95	2.49	49.00	64.00
	화장	76.89	2.99	70.50	85.00
둘레 항목	가슴둘레	97.53	5.21	85.50	111.70
	허리둘레	86.61	7.11	67.50	106.70
	배둘레	91.44	5.92	77.20	107.50
	엉덩이둘레	95.93	4.52	80.50	107.00
	넓다리둘레	56.09	3.96	43.00	68.50
	겨드랑이둘레	42.27	2.32	37.00	49.00
기타	목둘레	37.81	1.97	33.50	45.50
	몸무게	72.63	8.88	56.20	100.00
	드롭치	10.83	4.98	-1.50	25.00

2. ISO/KS 치수체계에 따른 비교분석

1) 체형 분류

(1) Drop 분포

ISO 남성 의의류 치수체계에서 남성의 체형을 구분하는 Drop은 가슴둘레에서 허리둘레를 뺀 치수로 정의하고 있으며 Drop값의 편차는 6 cm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Drop값의 편차를 4~6cm 간격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5>은 ISO/KS의 규격에서 드롭값의 분포를 비교한 것이다.

ISO 규격으로 측정치를 분류했을 때 Drop 24이상인 체형을 제외한 모든 체형이 포함되는 분류가 이루어진 반면 KS 규격에서는 Drop 8이하의 체형을 위한 분류가 설정되지 않아 통통한 체형 즉 비만한 체형에 대한 고려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ISO 체계에서는 중년 남성의 경우 3개의 체형에서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는데 표준형(Drop 12) 42.9%, 통통한형(Drop 6) 32.7%, 스포츠맨형(Drop 18) 17.9%의 순서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20대는 스포츠맨형(Drop 18)과 표준형(Drop 12)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다고 한 선행연구 결과(이형숙, 1999)와 좋은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중년에는 좀 더 허리부분이 굵어져 Drop이 작은 체형으로 변화됨을 알

<표 5> Drop에 의한 체형분류 및 분포

기준	편차	체형	Drop	빈도(명)	백분율(%)	누적백분율(%)
ISO 규격	6	C(비만형)	-6 (-9~-3)	0	0.0	0.0
		S(딱바라진형)	0 (-3~3)	6	3.6	3.6
		P(통통한형)	6 (3~9)	55	32.7	36.3
		R(표준형)	12 (9~15)	72	42.9	79.2
		A(스포츠편형)	18 (15~21)	30	17.9	97.0
			24 (21이상)	5	3.0	100.0
		(소계)		168	100.0	
KS 규격	4		0 (-2~2)	4	2.4	2.4
			4 (2~6)	22	13.1	15.5
		BB(배가나온형)	8 (6~10)	46	27.4	42.9
		B(허리가 굽은형)	12 (10~14)	54	32.1	75.0
		A(보통체형)	16 (14~18)	28	16.7	91.7
		Y(역삼각체형)	20 (18~22)	9	5.4	97.0
		YY(마른체형)	25 (22~28)	5	3.0	100.0
	(소계)		168	100.0		

수 있다. 반면에 KS 체계에서는 4개 체형(Drop 4, Drop 8, Drop 12, Drop 18)에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6cm 간격의 ISO 규격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표준형(Drop 12)과 통통한형(Drop 6)의 체형이 75.6%를 차지하고, KS 규격은 허리가 굽은 체형(Drop 12)과 배가 나온 체형(Drop 8)이 59.5%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여 6cm의 치수간격이 체형을 좀 더 많이 커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만형이 많은 중년 남성의 커버율이 ISO 규격은 Drop 12를 기준으로 79.2%로 KS규격의 75% 보다 높게 나타났다.

(2) 키의 분포

ISO/KS 규격에 따라 6cm, 5cm 치수간격으로 측정치를 분석하여 <표 6>에 제시하였다.

키의 분포는 170cm를 기준으로 ISO 규격은 83.3%의 커버율을 보인 반면 KS 규격은 82.1%의 커버율을 나타내고 있다. ISO 규격에서는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164cm그룹은 31.0%, 170cm그룹은 38.7%로 두 개 그룹이 69.7%를 커버하고 있고 KS 규격에서는 165cm그룹은 28.0%, 170cm그룹은 33.3%로 61.3%를 커버하고 있다.

(3) 가슴둘레의 분포

ISO/KS 규격에 의해 가슴둘레의 분포를 분석하여 <표 7>에 제시하였다. 가슴둘레의 분포는 100cm를 기준으로 4cm, 2cm 치수간격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ISO 규격은 6개 치수(88cm~108cm)에서 97.6%의

<표 6> 키의 구간별 분포

기준	편차	키(cm)	빈도(명)	백분율(%)	누적백분율(%)
ISO 규격	6	158	23	13.7	13.7
		164	52	31.0	44.6
		170	65	38.7	83.3
		176	23	13.7	97.0
		182	5	3.0	100.0
			(소계)	168	100.0
KS 규격	5	155	4	2.4	2.4
		160	31	18.5	20.8
		165	47	28.0	48.8
		170	56	33.3	82.1
		175	21	12.5	94.6
		180	8	4.8	99.4
		185	1	0.6	100.0
	(소계)	168	100.0		

커버율을 보였고 KS 규격은 9개 치수(88cm~108cm)에서 96.4%의 커버율을 나타내 KS 규격의 경우 매우 세분화됨을 알 수 있다.

또 ISO 경우 높은 빈도를 보인 3개 치수(92, 96, 100)는 75.6%의 커버율을 보인 반면에 KS 경우 4개 치수(94, 96, 98, 100)는 56.6%의 커버율을 나타내고 있다.

2) 치수간격 설정

경제적인 치수간격 설정을 위해 ISO/KS 규격을 비교한 결과 drop분포의 경우 KS는 체형분류상 drop 8

<표 7> 가슴둘레의 구간별 분포

기준	편차	가슴둘레 (cm)	빈도 (명)	백분율 (%)	누적백분율 (%)
ISO 규격	4	84	1	0.6	0.6
		88	6	3.6	4.2
		92	35	20.8	25.0
		96	45	26.8	51.8
		100	47	28.0	79.8
		104	23	13.7	93.5
		108	8	4.8	98.2
		112	3	1.8	100.0
	(소계)	168	100.0		
KS 규격	2	86	2	1.2	1.2
		88	2	1.2	2.4
		90	10	6.0	8.3
		92	16	9.5	17.9
		94	27	16.1	33.9
		96	21	12.5	46.4
		98	24	14.3	60.7
		100	23	13.7	74.4
		102	16	9.5	83.9
		104	9	5.4	89.3
		106	12	7.1	96.4
		108	2	1.2	97.6
		110	1	0.6	98.2
112	3	1.8	100.0		
	(소계)	168	100.0		

이하의 체형은 명칭을 설정하지 않아 표준형 위주로 분류되어 점점 비만화 되어가는 중년 남성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보여 진다. 반면에 ISO는 비만형을 거의 포함하는 97.0%의 높은 커버율을 보여 우리나라 남성의 체형이 비만화 되는 서구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깨가 넓은 우리나라 남성의 특징은 반영되지 않아 drop 21이상의 체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키의 분포는 6cm 간격의 ISO 규격은 4개(158, 164, 170, 176)의 간격에서 97.0%의 커버율을 보였고 KS 규격은 4개(160, 165, 170, 175)의 간격에서 92.2%를 보여 ISO 규격이 좀더 높은 커버율을 나타내고 있다.

가슴둘레의 분포에서 KS 규격은 2cm 간격으로 너무나 세분화 되어 의류생산 시 치수설정에 있어서 많은 혼란을 준 것으로 보이며 100사이즈를 기준으로 한 커버율도 ISO는 5개 치수에서 79.8%인 반면에 KS는 8개 치수에서 74.4%의 커버율을 보이고 있다.

<표 8> 키와 가슴둘레의 분포

키 \ 가슴둘레	158	164	170	176	182	합계
84			1 (0.6%)			1 (0.6%)
88	2 (1.2%)	2 (1.2%)	2 (1.2%)			6 (3.6%)
92	5 (3.0%)	14 (8.3%)	12 (7.1%)	4 (2.4%)		35 (20.8%)
96	9 (5.4%)	17 (10.1%)	15 (8.9%)	4 (2.4%)		45 (26.8%)
100	5 (3.0%)	14 (8.3%)	21 (12.5%)	5 (3.0%)	2 (1.2%)	47 (28.0%)
104	1 (0.6%)	4 (2.4%)	11 (6.5%)	6 (3.6%)	1 (0.6%)	23 (13.7%)
108	1 (0.6%)	1 (0.6%)	3 (1.8%)	3 (1.8%)		8 (4.8%)
112				1 (0.6%)	2 (1.2%)	3 (1.8%)
합계	23 (13.7%)	52 (31.0%)	65 (38.7%)	23 (13.7%)	5 (3.0%)	168 (100.0%)

■: 음영은 5%이상의 분포를 나타냄.

그러므로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적으로 호환될 수 있는 치수체계 설정을 위해서는 중년 남성의 특징이 좀 더 잘 반영된 ISO 규격에 맞추어 치수체계를 설정해 보고자 한다.

3) 간격설정에 따른 키와 가슴둘레의 분포

중년 남성의 키와 가슴둘레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앞서 설정한 키와 가슴둘레 구간 설정기준에 따라 키는 170cm를 중심으로 6cm 간격으로 가슴둘레는 100cm 기준으로 4cm 간격으로 구분하여 키와 가슴둘레 분포를 살펴본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에 의하면 키는 158cm~176cm 구간의 4개 치수가 97%의 커버율을 나타냈고 가슴둘레는 88cm~108cm 구간의 6개 치수가 97.6%의 커버율을 나타냈다.

또 키 170cm·가슴둘레 100cm(12.5%), 키 164cm 가슴둘레 96cm(10.1%), 키 170cm·가슴둘레 96cm(8.9%), 키 164cm·가슴둘레 92cm(8.3%), 키 164cm·가슴둘레 100cm(8.3%), 키 170cm·가슴둘레 92cm(7.1%), 키 170cm·가슴둘레 104cm(6.5%) 순으로 분포하고 있다. 특히 중년 남성은 키 164cm~170cm 구간의 2개 치수에 69.7%가 분포하고 있으며 가슴둘레는 92cm~104cm 구간의 4개 치수가 88.3%의 집중적인 분포를 보

이고 있다.

4) 간격설정에 따른 체형과 키의 분포

중년 남성의 체형(Drop)과 키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앞서 설정한 체형과 키의 구간설정 기준에 의해 체형은 6cm 편차로, 키는 6cm 간격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를 적용하여 체형과 키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를 <표 9>에 제시하였다.

<표 9>에 의하면 통통한형(Drop 6)과 표준형(Drop 12)에 75%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이는 20대 남성의 경우 스포츠맨형(Drop 18)과 표준형(Drop 12)이 대표체형이라고 한 이형숙(1999)의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중년 남성은 가슴둘레보다 허리둘레, 배둘레가 비대해져 체형이 통통한형으로 변화됨을 알 수 있으며 중년 남성의 치수설정 시 통통한형(Drop 6)과 표준형(Drop 12)을 위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3. 중년 남성의 의류치수 규격

1) 체형에 따른 치수분류

커버율이 높은 호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중년 남성의 체형분류 결과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 통통한형(32.9%)과 표준형(41.8%)의 키와 가슴둘레 분포를 구하였다(표 10~11). 통통한형(Drop 6)에서는 키 170cm 가슴둘레 100cm에서 가장 높은 빈도(12.7%) 나타내 기본 호수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며 표준형(Drop 12)에서는 키 170cm·가슴둘레 100cm에서 가장 높은 빈도(16.9%) 나타내고 있다.

<표 9> 체형에 따른 키의 분포

Drop \ 키	158	164	170	176	182	합계
0(딱바라진형)	1 (0.6%)	2 (1.2%)	3 (1.8%)			6 (3.6%)
6(통통한형)	9 (5.4%)	16 (9.5%)	20 (11.9%)	8 (4.8%)	2 (1.2%)	55 (32.7%)
12(표준형)	9 (5.4%)	22 (13.1%)	30 (17.9%)	9 (5.4%)	1 (0.6%)	71 (42.3%)
18(스포츠맨형)	4 (2.4%)	10 (6.0%)	10 (6.0%)	5 (3.0%)	2 (1.2%)	31 (18.5%)
24		2 (1.2%)	2 (1.2%)	1 (0.6%)		5 (3.0%)
합계	23 (13.7%)	52 (31.0%)	65 (38.7%)	23 (13.7%)	5 (3.0%)	168 (100.0%)

■: 음영은 5%이상의 분포를 나타냄.

<표 10> 체형에 따른 키와 가슴둘레의 분포
(표준형 : Drop 12)

가슴둘레 \ 키	158	164	170	176	182	합계
88	2 (2.8%)	1 (1.4%)				3 (4.2%)
92	2 (2.8%)	4 (5.6%)	7 (9.9%)	3 (4.2%)		16 (22.5%)
96	3 (4.2%)	9 (12.7%)	5 (7.0%)			17 (23.9%)
100	2 (2.8%)	7 (9.9%)	12 (16.9%)	2 (2.8%)		23 (32.4%)
104		2 (2.8%)	4 (5.6%)	1 (1.4%)	1 (1.4%)	8 (11.3%)
108			2 (2.8%)	1 (1.4%)		3 (4.2%)
112				1 (1.4%)		1 (1.4%)
합계	9 (12.7%)	23 (32.4%)	30 (42.3%)	8 (11.3%)	1 (1.4%)	71 (100.0%)

■: 음영은 5%이상의 분포를 나타냄.

<표 11> 체형에 따른 키와 가슴둘레의 분포
(통통한형 : Drop 6)

가슴둘레 \ 키	158	164	170	176	182	합계
84			1 (1.8%)			1 (1.8%)
88						0 (0.0%)
92	2 (3.6%)	5 (9.1%)	3 (5.5%)	1 (1.8%)		11 (20.0%)
96	5 (9.1%)	5 (9.1%)	6 (10.9%)	1 (1.8%)		17 (30.9%)
100	1 (1.8%)	5 (9.1%)	7 (12.7%)	2 (3.6%)	1 (1.8%)	16 (29.1%)
104	1 (1.8%)	1 (1.8%)	3 (5.5%)	4 (7.3%)		9 (16.4%)
112					1 (1.8%)	1 (1.8%)
합계	9 (16.4%)	16 (29.1%)	20 (36.4%)	8 (14.5%)	2 (3.6%)	55 (100.0%)

■: 음영은 5%이상의 분포를 나타냄.

또 통통한형과 표준형에서 5%이상 분포를 보이고 있는 호수는 통통한형은 9개, 표준형은 6개로 총 15개의 호수로 나타났다.

2) 체형에 따른 치수규격

중년 남성의 커버율이 높은 의류치수 규격을 설정

하고자 기본부위인 키와 가슴둘레를 기준으로 구간을 설정하고 생산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체형별로 키와 가슴둘레의 분포가 높은 호수(통통한형 9개, 표준형 7개)를 설정하였다(표 12~13).

호칭은 상의류 및 전신용의류와 하의류로 나누어

구분하였으며 상의류 및 전신용의류의 기본부위는 키-가슴둘레-허리둘레로 표시하였고 참고부위는 등길이, 뒷폭, 양어깨길이, 소매길이를 제시하였다.

하의류의 경우 바지길이는 키에 영향을 주고 생산자와 소비자에게도 필요한 항목으로 키를 추가하여 키-

<표 12> 표준형(Drop 12)의 의류치수체계

의복종류	호칭	기본부위 치수			참고부위 치수			
		신장	가슴둘레	허리둘레	등길이	뒷폭	양어깨길이	소매길이
상의류 및 전신용의류	164-92-80	164	92	80	41.4	40.5	44.1	52.1
	164-96-84	164	96	84	41.7	40.8	43.4	53.8
	164-100-89	164	100	89	43.4	43.4	44.6	54.1
	170-92-82	170	92	82	40.9	41.0	43.9	54.2
	170-96-83	170	96	83	42.8	40.1	44.1	55.4
	170-100-87	170	100	87	44.6	41.9	44.8	55.2
	170-104-92	170	104	92	44.2	43.3	46.4	56.6
의복종류	호칭	기본부위 치수			참고부위 치수			
		신장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바지길이	밑위길이	넙다리둘레	살높이
하의류	164-80-94	164	80	94	95.4	25.3	55.8	69.9
	164-84-93	164	84	93	94.2	25.4	53.4	68.9
	164-89-98	164	89	98	95.9	26.9	57.4	68.4
	170-82-95	170	82	95	103.2	25.4	54.2	71.2
	170-83-97	170	83	97	98	25.8	56	69.2
	170-87-98	170	87	98	96.6	25.1	62	71.2
	170-92-100	170	92	100	99.9	25.6	58.6	71.9

<표 13> 통통한 형(Drop 6)의 의류치수체계

의복종류	호칭	기본부위 치수			참고부위 치수			
		신장	가슴둘레	허리둘레	등길이	뒷폭	양어깨길이	소매길이
상의류 및 전신용의류	158-96-90	158	96	90	42.1	39.9	43	53.1
	164-92-86	164	92	86	43.6	40.4	43.9	53.4
	164-96-89	164	96	89	44.3	40.8	44.3	52.6
	164-100-94	164	100	94	43.6	41.2	43.6	54.1
	170-92-87	170	92	87	44.5	39.3	43.3	56
	170-96-89	170	96	89	44.2	41.1	43.2	56
	170-100-92	170	100	92	43.1	42.8	44.7	55.3
	170-104-96	170	104	96	44.3	43.2	45.5	54.7
	176-104-97	176	104	97	46	43	45.6	59.6
의복종류	호칭	기본부위 치수			참고부위 치수			
		신장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바지길이	밑위길이	넙다리둘레	살높이
하의류	158-90-94	158	90	94	91.3	24.2	53.9	67.2
	164-86-94	164	86	94	95	25.6	53.1	69.2
	164-89-97	164	89	97	93.5	25.9	56.8	70.7
	164-94-96	164	94	96	94.8	25.6	56.5	69.2
	170-87-96	170	87	96	97.3	26.5	57.2	73.3
	170-89-98	170	89	98	98.7	24.8	57.2	72.3
	170-92-98	170	92	98	96.1	25.7	56.5	70.6
	170-96-101	170	96	101	97.3	25.2	57.8	70.3
	176-97-103	176	97	103	101	25.3	59.1	74.8

허리둘레-엉덩이둘레로 표시하였다. 참고부위는 바지 길이, 밑위길이, 넙다리둘레, 살높이를 제시하였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인체측정을 실시하여 ISO/KS 규격을 비교 검토하여 치수간격을 설정하였고 체형과 키를 중심으로 치수를 분류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본부위인 키, 가슴둘레, 허리둘레의 평균은 167.67cm, 97.53cm, 86.61cm로 나타 났으며 참고부위인 엉덩이둘레는 95.93cm, 살높이는 71.05cm, 드롭치의 평균값 은 10.88cm로 나타났다.

2) 체형분류는 가슴둘레와 허리둘레의 차(Drop)에 의해 분류되었으며,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체형은 통통한 체형(Drop 6)과, 표준형(Drop 12)으로 두 체형의 커버율은 75.6%로 분석되어 중년 남성의 경우 대체로 허리가 두꺼워지는 통통한 체형이나 표준형에 속함을 알 수 있다.

3) 기본부위의 경우 ISO/KS 치수체계에 따른 비교 분석 결과 키 6cm, 가슴둘레 4cm의 치수 간격이 커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 남성은 키는 158cm~176cm 구간의 4개 치수가 97%의 커버율을 나타냈고 가슴둘레는 88cm~108cm 구간의 6개 치수가 97.6%의 커버율을 나타냈다.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낸 치수는 키의 경우 164cm(31.0%), 170cm (38.7%) 두 개 그룹이 69.7%를 커버하고 있고 가슴둘레는 3개 치수(92cm, 96cm, 100cm)가 75.6%의 커버율을 보였다.

4) 체형에 따른 키와 가슴둘레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표준형과 통통한 체형 모두에서 키 170cm, 가슴둘레 100cm가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다. 또 키와 가슴둘레의 분포에서 생산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빈

도가 높은 호수(표준체형 7개, 통통한형 9개)를 선정하여 상의류는 키-가슴둘레-허리둘레로 표시하였으며, 하의류는 키-허리둘레-엉덩이둘레로 표시하여 의류치수 규격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체형 특성이 반영된 의복치수 설정으로 신체적합성이 높은 의류생산과 의류업체의 생산효율성을 극대화 시키고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구자. (1999). 신사복 상의 설계를 위한 체형의 호칭 분류와 사이즈 스펙. *한국의류학회지*, 23(8), 1240-1247.
- 김구자, 이순원. (1997). 기성복 제작을 위한 성인 남성의 사이즈 스펙 분류. *한국의류학회지*, 21(7), 1247-1257.
- 김애린. (1998). 한국 의류제품의 국제경쟁력 재고를 위한 치수규격 연구. *생활과학간호*, 233-264
- 김혜수. (2001). *개발주문생산실태와 수정패턴의 착의평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2000). *의류치수와 관련된 KS규격*.
- 성옥진. (2002). *중년 남성의 체형분류와 재킷 길원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유희숙. (1998). *노년 여성의 체형별 의복치수와 그레이딩 체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진희. (1996). *성인 미만 여성의 체형특징 및 기성복 치수 체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형숙, 남윤자. (1999). 우리나라 의류제품의 국제경쟁력 재고를 위한 사이즈 체계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4), 397-405.
- 임영자, 이형숙. (1999). *국내의 여성복 사이즈체계 비교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3(3), 391-401.
- 정명숙. (2000). *성인 여성의 체형별 연령층별 상의 치수체계*. *한국의류학회지*, 24(4), 521-529.
- ISO. (1991). *Standard Sizing Systems for clothes*. ISO/TR 10652:1991(E).